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8.(수) 배포 즉시 배포 2026. 4. 8.(수) 17:00

국가AI전략위, 중소기업·스타트업 국방AX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방산 수출 4강’ 위한 대기업과 상생 방안, 정부측에 요청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 중소기업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현지 전담인원 편성 검토
- 중소기업 AI, 무인체계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추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4월 8일(수) 오후, 국가AI전략위에서 국방 AX 참여 활성화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임문영 상근부위원장 주관하에 19개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 심승배 국방·안보분과장,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방산 수출 4강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실질적인 간담회 진행을 위해 위원회는 ①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②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방산분야 진출 활성화 요청사항, ③ 방산수출 활성화 요청사항, ④ 기타 국가AI전략위원회와 정부부처에 요청사항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측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간담회 참여기업은 방산 AI, 무인체계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 조직 확대, AI, 무인체계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 등을 건의하였다.

○ 방산 AI, 무인체계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조직 확대

미국은 방산수출 관련 정부인원이 외국에 상주하며 현지 군 관계자와 시연행사, 제품 구매관련 면담 등 지원을 수행하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전담조직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대해 방사청은 기존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전담조직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AI, 무인체계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

군사용 AI, 무인체계를 개발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군 작전환경과 유사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시험과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이번에 신설된 국방 AX거점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드론 등 무인체계 실험을 위해 부대여건 고려하여 가용한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AI 기술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속도감 있는 국방AX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모두 방산 수출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향후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국방AX 진출을 장려하고, 우수기업이 방산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I혁신팀	책임자	팀 장	서영지 (02-2224-4161)
		담당자	해군중령	안재희 (02-2224-4168)